

가족 사진

당신은 빛바랜 앨범 속에서 가족 사진들을 들여다 본 적이 언제였던가? 우리 집에는 몇권인지 잘 모르지만 제법 많은 가족 앨범들이 있었다. 아내는 빈손으로 이민오면서도 가족 사진들은 모두 챙겨왔는가 보다. 하지만 나는 살아오면서 그 앨범들 속의 사진들을 들여다 본 기억이 별로 없다. 아니 이민 오기 전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어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. 그것을 큰 액자에 만들어 지금도 집 거실에 걸어놓고, 사무실 책상 위에도 있으니 그 사진만은 매일 바라다 본다.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, 이민을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, 가족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절, 한국에서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다. 하지만 그 큰 사진 액자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. 아버지는 그 가족 사진을 찍기 1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. 그때 아버님 연세가 64 세였으니까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어느덧 그 나이가 된다. 나는 왜 아버지와 온 가족이 있는 사진을 확대해서 걸어 놓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. 아마도 막내 아들놈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. 막내 아들놈이 태어나기 수년 전에 아버님이 타계하셨으니 부모님과 자식들 모두 찍은 사진이 있을리 만무하다. 그래서 내 자식들은 모두 있고 아버님은 안계신 사진을 택한 것은 아닐까. 송구하고도 불효막심이다. 그러면서도 마음 속으로만 그리워 할 뿐, 앨범 속의 아버지 사진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.

그런데 이번에 친구로 부터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. 아내가 평소에 앨범들 사진들이 빛 바래고 퇴색되는 것은 물론이고, 앨범들이 오래 되어서 새 앨범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사진들이 손상되기 십상이라고 친구에게 하소연 했는가 보다. 평소에도 내 친구와 내 아내는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는 또 다른 친구 사이다. 아내가 고민하니까 친구가 사진들을 몽땅 가져오면 디지털 영상으로 모두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. 침단 디지털 영상장비들을 갖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. 그래서 철없는 아내는 나도 모르게 앨범 속 사진들을 몽땅 떼어내어 그 친구에게 갖다 주었다. 그런데 그 사진의 양이 무려

*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.

4 천 5 백장이었다. 친구는 많아야 몇백장 정도일거라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양이었던 셈이다. 친구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도 않고 시간이 몇달 걸릴것 같으니 조금 참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는 그 사진들을 한장씩 작업했다고 한다. 나보다도 더 바쁜 친구가 밤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어 6 개월 동안 그 사진들을 모두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었다. 그것도 모든 사진에다가 배경 음악을 깔아서 디지털 액자에 만들어 새집 이사 선물로 가져온 것이다. 고마우면서도 정말 감동적인 선물이었다. 그 디지털 사진 액자를 바라 보노라면 내가 살아온 길들이 보인다. 살아온 세월의 기쁨과 아픔이 보인다. 그 사진들 속에는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다. 내 형제들과 조카들이 있었고 내 어릴적 친구들이 있었다. 내 아내의 자라온 어린 시절과 처녀 시절이 있었다. 장인 어른, 장모님이 계셨고, 처가집 형제들이 있었다. 나의 자식들이 그 사진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고, 그 자식들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있었다. 처음 보는 사진들도 많았다.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,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들이 바보스러웠다.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잊고 살았던 감사할 이유들이 그 사진들 속에 너무나 많았다.

이 사진들을 모두 불러고 하면 몇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. 내 아내는 요즘 새로운 버릇이 한가지 생겼다. 집안 일을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혼자 그 사진들 앞에 마주 앉아 포도주 반잔을 마시면서 그 사진들을 하염없이 바라다 보는 것이다. 아내의 새로운 친구라고 한다. 사진을 바라보며 늙어가는 내 아내와 그 사진 속의 젊은 아내가 내 시야에 실루엣처럼 겹쳐 온다.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저 사진 속 처녀처럼 곱게 늙어 갈 수 있었을 텐데..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또 미안하기만 하다.

한편으로 자식이 부모와의 가족 사진을 바라볼 나이가 언제쯤일까. 지금은 내 자식들이 빛바랜 옛날 가족사진에 관심이 없듯이, 저들도 내 나이가 되어 늙어가면 그때서야 부모와의 사진들을 보며 그리워 할까.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며 찾을 때 자식은 그 자리에 없었고, 그 자식이 나이들어 부모를 그리워 할 때가 되면 그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, 저 가족 사진을 바라볼 나이가 되면 알까.

얼마 전에 나는 잘 알지 못하는 SG 워너비의 <김진호>라는 젊은 가수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작사 작곡한 <가족사진>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한 적이 있다. “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/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/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//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/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/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/ 외로운 어느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//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/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/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엄마 /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//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/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//

나는 살아 생전 아버지께 아무 것도 해 드린게 없다. 아버지. 오늘따라 아버지가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. 아버지.